

# 홍콩의 식탁에

## 우리가 생산한 계란이 오른다

5월은 우리 양계인들이 생산한 계란이 국제 인종 전시장 홍콩으로 수출되어, 세계각국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게한 뜻있는 달이었다.

비록 수출의 동기가 국내의 하락한 계란 값을 회복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우리가 생산한 계란이 홍콩이나 사우디까지 진출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그곳 국민들에게 한국 양계업자의 근면과 진취성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수출에는 수집 포장에서부터 선적까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양축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부딪치고 해결하여 봄으로서 앞으로 예상되는 수출에는 좀더 신속 정확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홍콩을 비롯한 중동지역의 소비자 기호는 물론 국제 계란 가격 동향까지 파악하게 된 점이 큰 수확이라고 하겠다.

계란수출이 각 일간지에 대서특필되고 T.V,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에게 널리 홍보됨으로써 국민의 계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소비가 증가되었고 생산자들에게는 계란 재고 증가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시키므로써 노계와 환우계의



△ 계란수출전 계우회 연합회는 광화문지하도에서 삶은 계란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계란소비 촉진 홍보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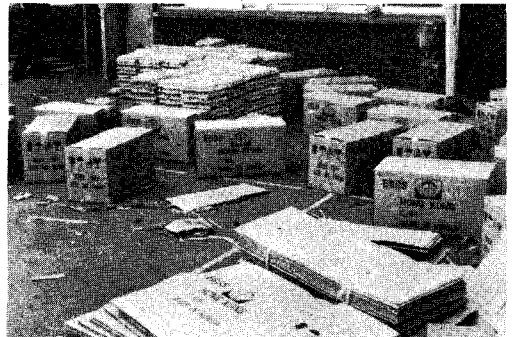


△ 계란의 선별작업(파란, 오란 등을 뺀 신선란을 골라 바로 포장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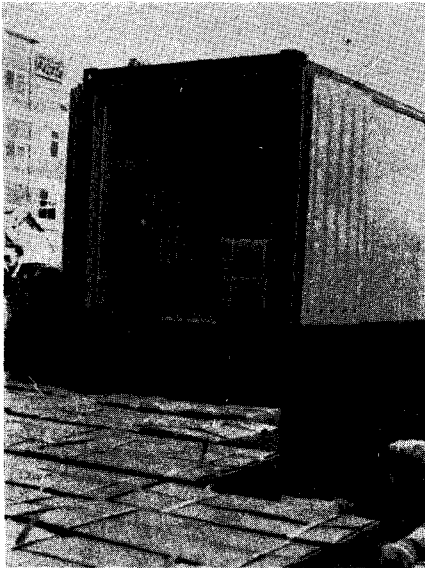
조기도태로 계란값의 조기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혹자는 이번 계란의 수출이 적자라는 점에서 또는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없고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20일 동안에 대란값을 개당 13원까지 인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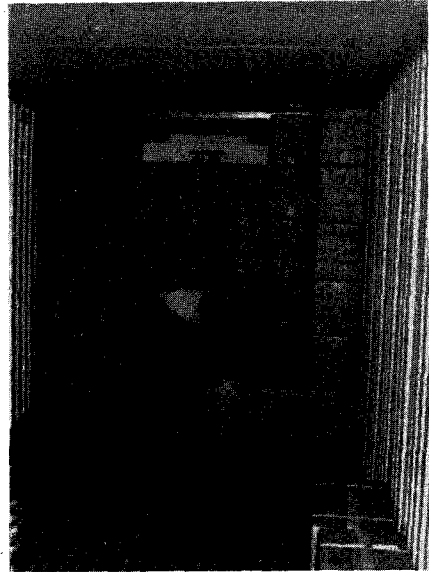
이번 계란수출에서 보여준 정부와 업계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덩어리로 뭉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게하였고 또 양계인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 하게 되었다.



△ 포장된 계란상자(도착지 홍콩, Made in Korea의 글자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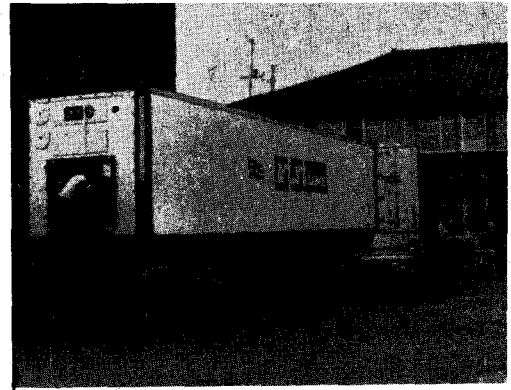


△ 포장된 계란박스를 컨테이너에 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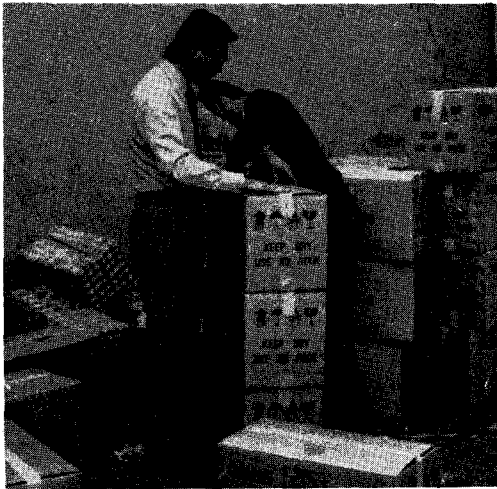


△ 계란박스를 적재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내부

이번 수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의 협조와 홍콩의 수출 창구를 맡았던 世時美상사(주)의 헌신적인 협조, 동물검역소의 신속 정확한 검역 등에 감사하며, 처음부터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한 한국사료협회 정태원 회장을 비롯한 권배상무, 김세현부장, 계우회연합회의 강희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운영위원 현대 양계의 김중곤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포장작업 등 서울에서 집하작업 장소를 제공해준 한일사료(주) (대표 차두홍)와 계란을 수집 운반한 양계업자 등 실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에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어려운 중에도 헌신



△ 계란을 신선하게 운반하게될 냉동컨테이너 (좌측에 냉동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 포장된 계란은 테이프로 붙인 후 줄로 단단이 묶어 선적하게 된다.

적으로 이번 수출에 협조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양계업자는 업계의 주인의식을 갖고 한번 약속된 것은 꼭 지키고야 말겠다는 굳의 의지로 대내외적으로 양계인의 신용을 더욱 높여야될 것이다.

작은 이해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또 일시적인 잔재주를 즐기다 보면 우리를 협조해 주는 우리의 이웃이 점점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긴 안목으로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개척하기 위해 이번 보여준 단결된 힘으로 양계산업이 안정되도록 이제는 제도적 조치를 하는데 서둘러야 하겠다.